노승이 전한 가르침…“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롭다”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지음
불광출판사
1만7000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마음을 열어 누군가와 말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군불 지피듯이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디딤돌과 버팀목이 그리운 오늘이다. 행복과 자유, 그리고 빛을 향해 떠나는 게 인생의 나그넷길이다. 그러나 빛은 짧고 어둠은 길게 허무의 그림자처럼 누워 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빛과 그림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외로움의 터널에 갇혀 헐떡이는 호흡처럼 더러는 흔들리고 더러는 방황하며 철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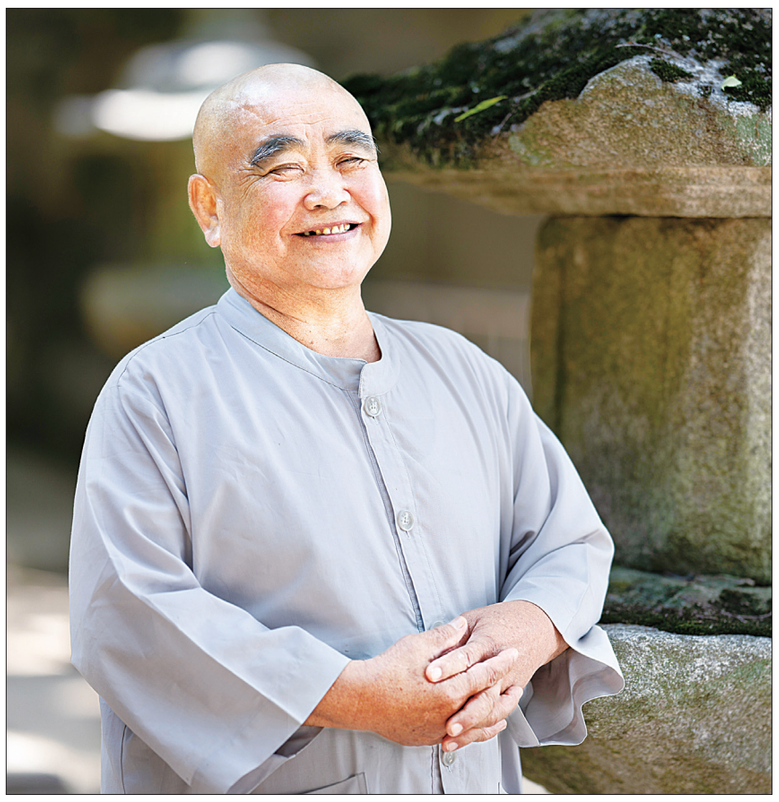
1980년대 베스트셀러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향봉 스님은 잊힌 스님이다. 젊은 시절 한때,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시절도 있었다. 불교계 권력의 실세 역할도 해보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뒤늦게 철이 들어’ 마흔 무렵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15년간 인도와 네팔, 티베트, 중국을 떠돌며 구도행을 이어갔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 머무르며,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하며 산다. 그렇게 70대 중반의 노승이 됐다.

사자암 20년 주석 중인 ‘산골 노승’
향봉 스님 전하는 ‘사유의 궤적’들

담백하며 맛깔스런 문장에 매료돼
흔치 않은 글맛에 가슴이 따뜻해져

향봉 스님의 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담백하지만 맛깔스럽다. 유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울컥해진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향봉 스님은…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작아지는 아이〉, 〈무엇이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가〉, 〈일체유심조〉, 〈선문답〉 등 20여 권을 펴냈다.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흔하지 않은 글맛이다. 오랜만에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산골 노승 향봉 스님은 말한다.

“무엇이든 나누면 기쁘고 덜어내면 가뿐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함의 여유와 당당함의 결기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은 향봉 스님의 ‘구도기’이자 ‘깨달음의 기록’이다. 1장은 젊은 날의 자화상, 2장은 산골 사자암의 일상, 3장은 치열한 구도행의 흔적, 4장은 확철하게 깨친 진리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향봉 스님이 이끄는 대로 웃다가 울다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직 답을 섣불리 말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곱씹다 보면 답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별것 아닌 것들의 소소한 행복이 나를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한다. 산이 쩡쩡 울릴 만큼 바위벽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여전(旅錢) 한 닢 마련 없이도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남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니 세상이 배 안에 담겨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누군가 법당의 부처님 앞에 사과 한 알을 놓고 가, 그 사과로 후식까지 즐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산골 늙은이의 화려한 점심을 마친 셈이다. 75p

어떤 사상과 철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간다. 그러므로 우리네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빛과 어둠이 뒤엉키며 종교의 신앙마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열 명의 애인이 있어도 채울 수 없고 주머니가 빵빵해도 허기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 일이다. 218p

주목! 신간 학술서

선 전통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운주사 / 4만5000원

〈새로 보는 선불교〉는 프랑스 출신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컬럼비아대 교수)의 연구 저작을 정천구 백성욱연구원 이사장이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불교는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을 종지로 내세우며 공안 또는 화두를 통해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선 전통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선의 특징이고 본질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선 전통은 허구이며 환상이라고 보고, 그런 선 전통은 해체되어야 한다고까지 역설한다.

저자는 선 전통에 관한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고 선이 어떻게 하나의 전통으로 형성되는지를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취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한 선에서 간과하거나 배제해 왔던 여러 상징(물)들, 즉 유물과 미라, 도상, 의례, 꿈, 성과 여성, 계율의 위반 등에 주목했으며, 선의 주변부에서 활동하며 선 전통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계적 인물들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렇게 해서 ‘순수 선’은 이념적으로 구축된 것일 뿐임을, 실제로는 선이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정치 권력, 민간 종교나 토착 신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통을 형성한 일종의 ‘혼종’임을 밝힌다.

이 책은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제시해 선불교를 더 폭넓게 다각도로 보아야 함을 일깨워줌으로써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증법적으로 왕복하면서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므로 그 변증법적 긴장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성민 기자

인도사상 4000년 역사 한 권에



인도사상사
존 M. 콜러 지음
허우성 옮김
운주사 / 5만5000원

불교와 동양철학을 탐구해온 저자가 오랜 역사를 지닌 인도철학과 종교, 사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한 〈인도사상사〉는 장구한 세월 인도인들의 삶 속에 스민 역사, 문화, 종교, 철학, 영성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인도사상사〉에서 깊고 광대한 인도의 역사 속에서 4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져온 인도인들과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지혜와 철학들을 찾아내 이를 정리·분류, 인도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총 17장으로 구성된 〈인도사상사〉는 서론에서 인도에 대한 이미지의 다양성과 변화, 연속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인더스 문명과 리그베다 검토를 시작으로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 새로운 사상운동인 자이나교와 불교의 역사적 성립과정과 사유, 불교 공동체인 상가의 성립에서 인도사상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마지막에는 근대 이후 서구의 등장과 이에 대한 인도의 대응을 서술하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들 예컨대 람 한 모이, 다야난다, 간디, 오르빈도 등 인물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인도가 심원하고 풍부한 인도사상을 품고 발전시키는 한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낙관하며 맺는다.

인도 전통 내의 위대한 이념을 탐구하는 일은 신나는 지적 모험이면서도 이는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유와 행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하므로 극히 실천적 모험이기도 하다.

임은호 기자

불교와 유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우익지욱 저·최세창 강설
운주사 / 2만7000원

명말 4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우익지욱 선사.

그의 저서 〈주역선해〉는 그가 스님임에도 단순히 불교적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치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은 〈주역선해〉를 ‘우환의식’과 ‘회통 융화’라는 키워드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주역철학의 핵심인 〈계사전〉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강설을 달아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재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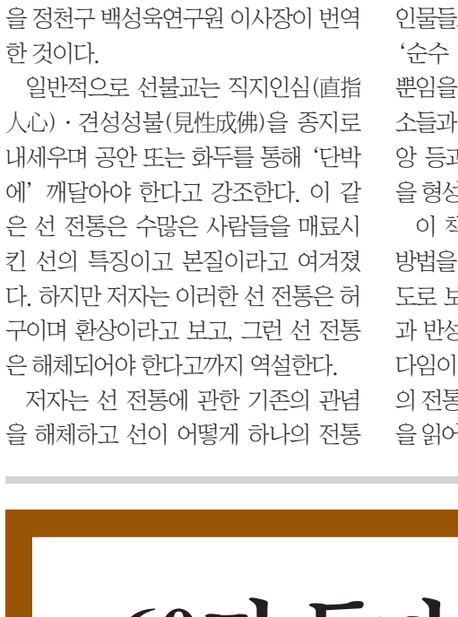
제1부에는 〈주역선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 담겼다. 먼저 불교 입장에서 〈주역선해〉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으로서 명나라 말의 혼란상과 아울러 삼교 융화와 융합, 통일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저자인 지욱선사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제2부는 〈계사전〉에 대한 온전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 그리고 각 원문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강설로 구성됐다.

이 책은 〈주역선해〉가 종래의 호교론이나 불교우위론을 주장하는 역대의 저술들과는 달리 〈주역〉을 중심에 놓고 선해함으로써 〈주역〉과의 ‘회통 내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주역선해〉가 불교나 유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치 않고 오히려 이를 뛰어넘어 〈주역〉이 보여주는 ‘우환의식’과 불교에서의 ‘보살도’를 회통시키고 융화하는 전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60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후
40년 만의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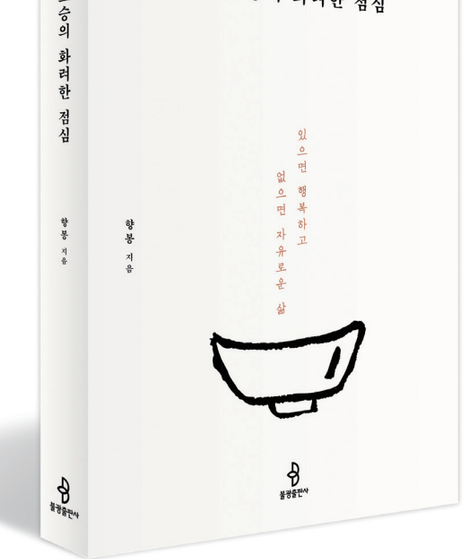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같은 맛,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스님의 글맛!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1위!

1980년대 법정 스님, 오현 스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향봉 스님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緣起) 법칙과 무아(無我), 중도 사상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적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글솜씨는 녹슬지 않았고, 유머도 많다.
-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

실타래 풀리듯 문장이 자연스러워 아직도 그 여운이 깊게 남는다. 눈물과 폭소를 오가며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해 하루 만에 완독한 책!
- ★★★★★ 알라딘 독자 아름다운사람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